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일 시 | 2016년 7월 22일(금) 14:00~17:00

장 소 |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회의실)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군산시 ·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세 / 부 / 일 / 정 /

14:00-14:10	☞ 개회식 - 인사말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환 영 사 : 군산시장, 청소년자치연구소 전문위원장
14:10-15:30 (1인 발표시간 : 20분)	☞ 발표 사회 : 이지수 교수(군산대학교) 1. 청소년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 발표: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교육훈련 방안 - 발표: 정건희 소장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3. 유럽의 청소년 참여 활동 현황 및 시사점 - 발표: 박선영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4. 국내외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 발표: 김세광 교수 (고신대학교)
15:30-15:50	☞ 휴식
15:50-16:30	☞ 토론 토론 1 : 오성우 국장 (군산시 시범사업 운영팀장 / 발표 1) 토론 2 : 강건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 발표 2) 토론 3 : 강성옥 시의원 (군산시의회 / 발표 3) 토론 4 : 차정희 과장 (군산시 담당공무원 / 발표 4)
16:40-17:00	☞ 종합토론 및 폐회 - 사회자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표자와 토론자, 외부 참석자 전원

차 / 례 /

■ 청소년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1
- 발표자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오성우 국장 (군산시 시범사업 운영팀장)	
■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교육훈련 방안	19
- 발표자 : 정건희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토론자 : 강 건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 유럽의 청소년 참여 활동 현황 및 시사점	37
- 발표자 :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성옥 (군산시의회 시의원)	
■ 국내외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51
- 발표자 : 김세광 (고신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차정희 (군산시 과장)	

개 / 회 / 사

이른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는 7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군산시, 그리고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이천시청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성원해주신 군산시장님, 강성옥 시의원님, 이강휴 전문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과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를 연속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 도에 이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II’을 군산과 이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에 관 하여 각계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포럼의 진행과 발표를 맡아주신 군산대학교 이지수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작성과 발표를 해주실 청소년자치 연구소 정건희 소장님, 박선영 교수님, 김세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강성옥 군산시 시의원님, 차정희 과장님, 오성우 국장님, 강건 학생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 참석한 청소년 여러분의 밝고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국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과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이천시청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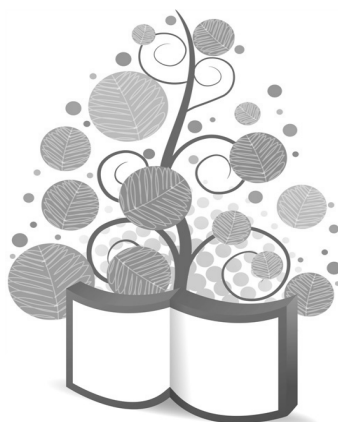
오늘 이 포럼을 통해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확산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발 표 1

청소년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 ▶ 발표자 :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토론자 : 오 성 우 국장 (군산시 시범사업 운영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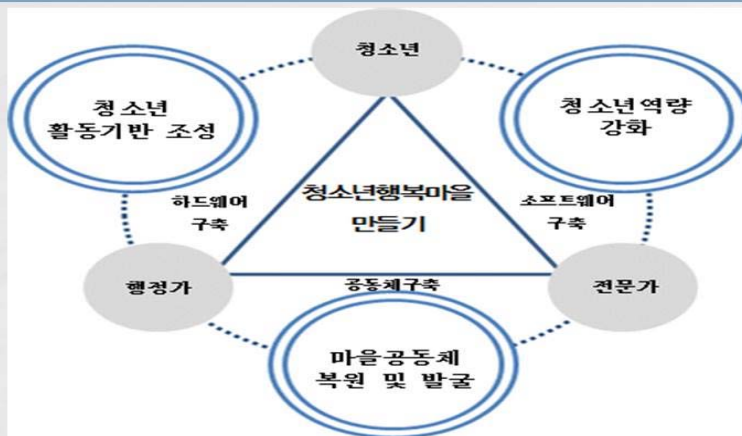
청소년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행복마을 운영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해섭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운영 모형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목표

▶청소년역량강화

-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와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 활동기반조성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놀이문화 활동 공간 확보
- 주변 지역 및 광역단위 시설과의 연계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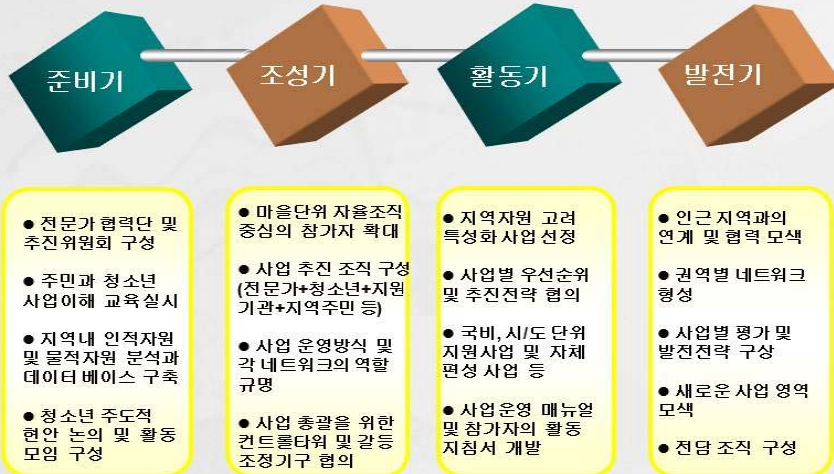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복원 및 발굴

-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 및 활동프로그램 발굴
-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파트너십 유지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청소년행복마을 중장기 추진전략 설정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영역별 추진전략

-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 확립
-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강화
-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운영시스템



- 법: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관련 조례 및 시행령 제정
- 조직:
 - 운영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 규명
 - 사업 및 활동에 따른 인원확보와 전문성 강화
- 운영체제:
전문가+청소년+지원기관+후원회
+지역주민+학교 간의 협력체제

청소년행복마을 재정확보 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조례 제정
- 지역단위 청소년행복마을 및 활동 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지역 내 후원회와 기업을 통한 기부 분위기 조성
- 우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문가와 청소년의 핵심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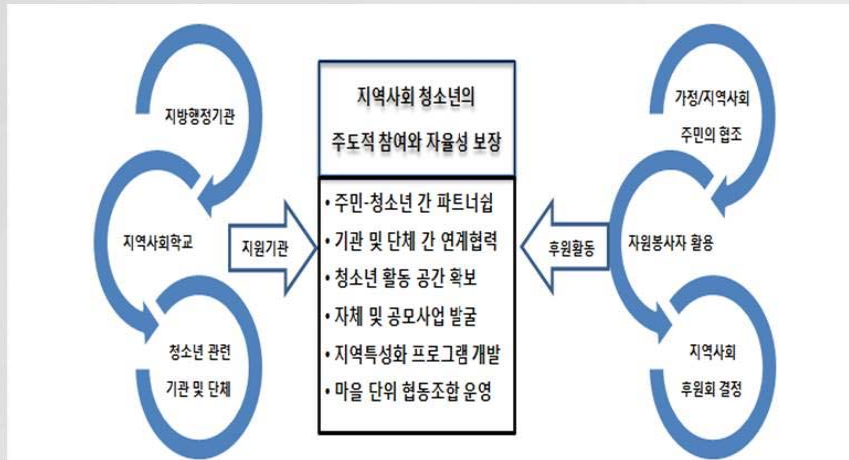
- 청소년 핵심역량 활동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관련단체 및 기관간 전문인력 네트워크 운영
- 정부와 청소년관련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청소년행복마을 세부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참가자의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
- 사업영역별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지원체계



청소년행복마을 중장기 추진 로드맵

운영체계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주도적인 기획과 실천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 복원**

감사합니다

청소년 행복마을의 진정한 주체는 청소년이다.

오 성 우 국장(군산시 시범사업 운영팀장)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진행 하고 있는 활동들

청소년자치연구소는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 시범사업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본 연구소에서는 3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청소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청소년 프리마켓 활동이 진행되고, 참여 영역에서는 청소년 기자단 Aspect 활동 및 청소년 의회 관련 활동이 진행되며, 활동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청소년 역사·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활동들은 다음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분 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산출 (회/시간/ 참여자수)
경 제	모집 및 홍보	협동조합 아카데미와 창업마케팅 아카데미 및 활동과정 참여자 모집	■ 일시 : 4월 ~ 5월 ■ 내용 : - 유관기관 공문발송 - 지면 홍보(시정 홍보지, 지역 정보지 등) - 온라인 홍보(온라인카페,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등 웹전단 게재) - 길거리 홍보(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 - 교사 대면홍보(진로, 진학,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중심, 중앙여자고등학교, 군산 상업고등학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문발송 33회 지면홍보 2회 보도자료 1회 온라인공유 4회 대면홍보 17회 청소년 59명 모집 5명 멘토 모집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산출 (회/시간/ 참여자수)
			- 청소년 주체 홍보(청소년이 홍보지 제작 및 학교 내 게시,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청소년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의 이해	- 일시 : 5월 7일, 21일, 28일 -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협동조합 아카데미(오지영-꿈까지, 이은희-아이쿱생협 이사장) -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최득실-사회적 기업 래그랜스 실장) - 나눔 아카데미(박훈서-착한동네 대표) - 창업 아카데미(양용수-키덜트팩토리 대표) - 마케팅 아카데미(이진우-호원대 디자인 전공 겸임교수) - 청년 사업가와의 인터뷰 및 현장 탐방(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3회 교육/6차시 90명참여(연인원) 수료30명
	청소년 협동조합 자치기구 활동	연간계획 및 멘토와의 연계	- 일시 : 5월 - 내용 : - 청소년자치기구 회칙 개정 - 팀별 연간 계획 구성 - 팀별 멘토와의 연계 - 9개팀 조직: 예봉's, 다현, 아름다운, 꽃보라, 금.박.작, 아띠, boy's story, 중앙여고 팀, 영광여고 팀	전체 회의 2회 임원 회의 2회 팀별 회의 10회 회칙 완성 연간 계획 작성 멘토 5명 연계
	청소년 협동조합 팀 연간계획 공유회	- 협동조합 활동에 앞서 청소년 주도의 아이템 및 연간 계획 결정 - 예비 협동조합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연대의식 향상 및 지지체계 형성	- 일시 : 6월11일 - 내용 : - 팀별 연간계획 공유 - 팀별 연간계획 발표에 따른 다른 팀의 평가 진행	25명 참여
	청소년 협동조합 자치기구 활동	멘토와 연계 활동, 활동 기획 및 진행	- 일시 : 6월 - 팀별 주요 활동 - 재료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재료 구입 - 물품 제작 및 멘토와 연계 - 물품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시연회 시행	정기회의 멘토와 관계형성 청소년 주체적 진행 시연회 4회 진행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산출 (회/시간/ 참여자수)
참여	모집 및 홍보	청소년의회 및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 일시 : 4월 ~ 5월 - 내용 -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 협조 - 길거리 홍보(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 - 교사 대면홍보(진로, 진학,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중심- 중앙여자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동원중학교, 월명중학교, 동산중학교, 서흥중학교, 제일중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 군산남중학교, 진포중학교, 군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회현중학교, 영광중학교)	공문발송 60회 지면홍보 2회 보도자료 2회 온라인공유 6회 대면홍보 6회 의회40명모집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청소년 의회활동과 입법활동의 이해	- 일시 : 5월14일, 21일 - 내용 : · 5월 14일 - 청소년 권리찾기(한국인권재단 오선영 사무국장)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 ‘사회참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재우) · 5월 21일 - 의회 입법활동의 이해 (김관영 국회의원) -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정희상 위원장) · 토론 및 발표	2회 교육/6차시 100명참여(연인원) 수료40명
	청소년 사회참여 네트워크활동	청소년의회 의원과 청소년기자단과 의 상호협력	- 일시 :5월~6월 - 내용 : - 청소년 기자단 활동 : 지역사회 현장 모니터링 및 언론공유(주 1회) - 청소년 기자멘토링(완주 어린이 행복도시 인증 동행취재-새전북신문)	회의: 5회 기사기고: 6회 120명참여(연인원) 기사20개 게시 (새전북 신문 연계)
활동	모집 및 홍보	역사체험활동 청소년 모집	- 일시 : 4월 ~ 5월 - 내용 : - 군산 중고등학교 공문발송 - 서흥중, 영광여고 교사 대면홍보 - 온라인 홍보(홍보물 다음카페, 페이스북으로 게시) - 지역일간지 홍보글 게시	공문발송 1회 대면홍보 2회 온라인홍보 1회 일간지홍보 1회 16명 모집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산출 (회/시간/ 참여자수)
	지역사회 역사·문화 동아리 활동	지역캠페인 준비	- 일시 : 5월 13일, 15일 - 내용 : - 독도를 기억하는 플래시몹 캠페인 회의 및 진행 - 플래시몹 형태 선정 및 준비 - 시민들과 공유할 팸플렛 제작 - 독도기억하기 기부 팔찌 문구 선정 및 주문	회의 2회 플래시몹 준비 독도기억하기 팸플렛 완성 기부팔찌 주문
		역사에 대한 지역캠페인 진행 (독도 기억하기)	- 일시 : 5월 21일 - 내용 : -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를 기억하는 플래시몹 캠페인을 진행 - 기억하기 위한 팔찌 판매 및 팸플렛 배부 - 플래시몹 및 캠페인 활동 영상촬영 및 온라인 공유 - 장소 : 은파호수공원	플래시몹 1회 팸플렛 200부 배부
		역사체험활동	- 일시 : 6월 6일 - 내용 : - 군산의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 - 군산의 역사자료가 남은 장소 탐방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31운동 기념관, 군산중학교	7명참여/ 블로그 글 4개/ 신문기사 1회/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이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청소년 주도성, 참여, 자치, 지역사회, 기여였다. 즉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했으며, 이 활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함께 진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치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했다. 이 외에도 우리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지역사회 기여이다. 자신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어지며, 지역사회의 기여에 자신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이번 공모사업의 추진 목표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번 시범사업의 추진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현장성 강화
- 청소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
-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

그렇지만 여전히 청소년자치연구소가 담당해야할 과제들은 분명히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여전히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구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기관, 단체, 시민들의 연대가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의 연속선상에서 최근 연구소에서는 “청소년 행복도시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달달포럼을 개최했고, 지속적으로 이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행복마을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계 혹은 사회복지계만의 문제나 일이 아니고, 지역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망라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의료계, 건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관련자들과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여 진짜 청소년 행복마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청소년자치연구소는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2. 시범사업 진행과 청소년 행복마을 운영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자료를 통한 몇 가지 생각들

시범사업을 약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그리고 청소년 행복마을 운영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자료를 살펴보며 실무자가 생각하고 고민한 지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은 청소년행복마을의 주체 중 한 그룹이다.

오혜섭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 PPT에서 언급된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운영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영역별 추진전략, 지원체계 로드맵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잠시 해봤다. 청소년은 청소년행복마을의 주체 중 한 그룹이며, 이를 지역사회와 성인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청소년들이 청소년행복마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행복마을 영역별 추진전략에서 제도/운영의 영역에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관련 조례 및 시행령을 제정할 때, 청소년들이 이 과정에 분명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어르신 복지나 영역에서 운동의 주체는 어르신이고, 여성 복지나 영역에서 운동의 주체는 여성입니다. 당연히 청소년행복마을 활동 및 운동의 주체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내 문화에서는 청소년들을 아직 어리다고 보는 시각과 문화가 있다. 이것을 탈피하여 청소년행복마을의 전 과정 안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참여가 녹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청소년행복마을이 되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들을 들러리 세우는 식의 방식으로서는 결국 허울뿐인 청소년행복마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진짜 청소년행복마을을 만드는 시작은 청소년들이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그룹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청소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발표자료에 보면,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의 첫 번째 목표가 청소년역량강화인데, 본인은 현재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 리더십, 시민의식 함양 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그에 대한 본 실무자의 답은 YES 이다. 약 3개월 간의 활동들을 살펴본다면,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진행되는 청소년 협동조합 활동,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청소년 기자단 Aspect, 청소년의회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활동은 모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기획단계부터 진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예컨대, 청소년협동조합 활동에서 ‘아띠’라는 쿠키를 만드는 프리마켓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부터 상품의 기획, 구성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회의하고 결정한다. 사회참여활동의 경우도 동일한데,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팀 회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지역 일간지(새전북신문)에 기사로 내기도 한다.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활동 역시 주제의 선정부터 청소년들이 사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활동이 진행된다. 이 같은 모든 활동 과정에 청소년들은 주도성을 발휘한다. 또한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청소년들과 늘 함께 고민한다. 이 같은 부분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 리더십, 시민의식 함양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앞에서 언급된 역량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고, 시간을 두고 종단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연구원이 함께 해주어야 한다.

본 실무자의 솔직한 견해는 이 시범사업이 최소 5년 정도는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우리 연구소는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활동 기반 조성 등이 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친화적이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민간 기관, 단체, 시민들과 연대를 준비중이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연구원의 관심과 지원이 끊어진다면, 이 사업과 활동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를 청소년 친화적이고 안전하게 바꾸는 데 모든 여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행복마을, 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고 지원할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넷째,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청소년활동가(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 혹은 청소년지도자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역량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전문가들은 많다. 청소년활동가도 그 중 하나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차치하고, 일단 청소년활동가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고민이 많다. 역량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다. 가치와 철학 역시 역량의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활동가들은 과연 청소년행복마을이나 관련 활동,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한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할까? 더욱 근본적으로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본인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가들의 가치와 철학이다.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역사회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은 엄청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을 여전히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를 시키는 데 익숙한 청소년활동가라면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을 대상화시킬 여지가 많다. 그래서 본인을 필요한 청소년활동가들의 반성과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우리 연구소는 어떤 단체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지도자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들은 “친화력과 친근감”, “공감”, “이해”, “배려” 등이었다. 청소년들 역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청소년활동가들의 가치나 철학을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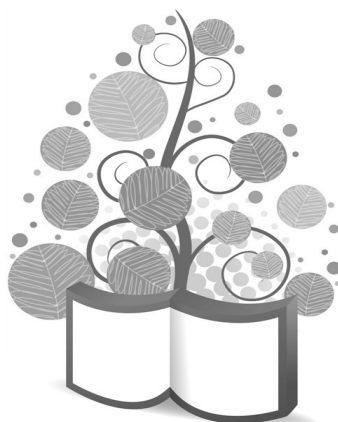
3. 결 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청소년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크게 2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이며, 두 번째는 시스템 혹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성인, 기관 등)는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의 주체가 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시스템과 인프라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과 관련된 시스템과 인프라는 청소년 및 사회복지 분야에만 국한되면 안된다. 문화, 예술, 의료, 건축 등을 망라하여 청소년들이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진짜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각 분야들이 소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소통의 과정에 청소년계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이벤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통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장(setting)과 판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발 표 2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교육훈련 방안

- ▶ 발표자 : 정 건 희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 토론자 : 강 건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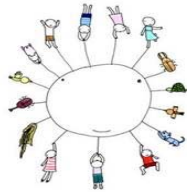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교육훈련 방안

정 건 희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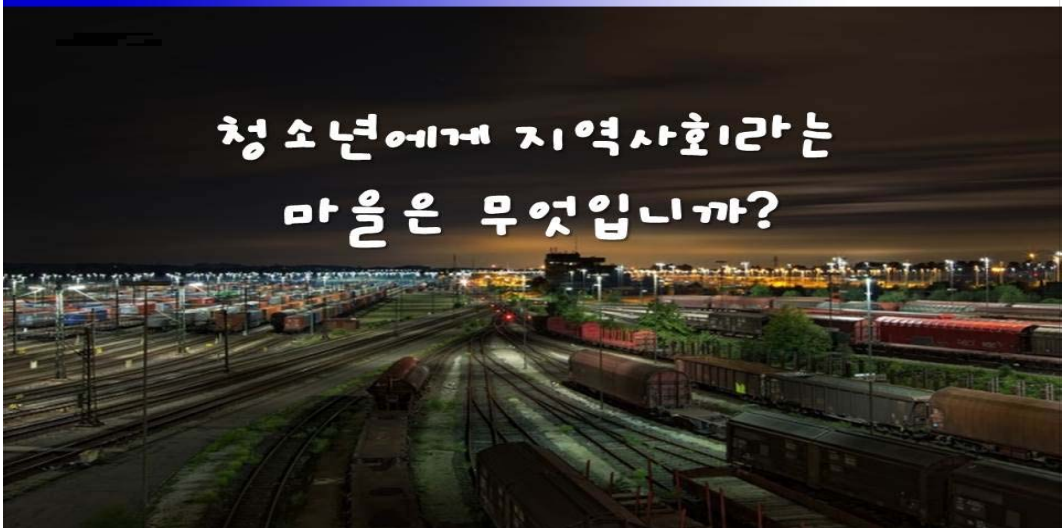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정 건 희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청소년에게 지역사회라는 마을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개발을 위한 10가지 원칙

Child Friendly Cities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때 아동의 의견
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
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 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UNICEF

Child Frindly Cities가 되려면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관련예산의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
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
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
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
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
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 한가지 더!!!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
고
시행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7

아동친화도시운동(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는 1996년 이후 지역사회와 지방자
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
적인 운동!!!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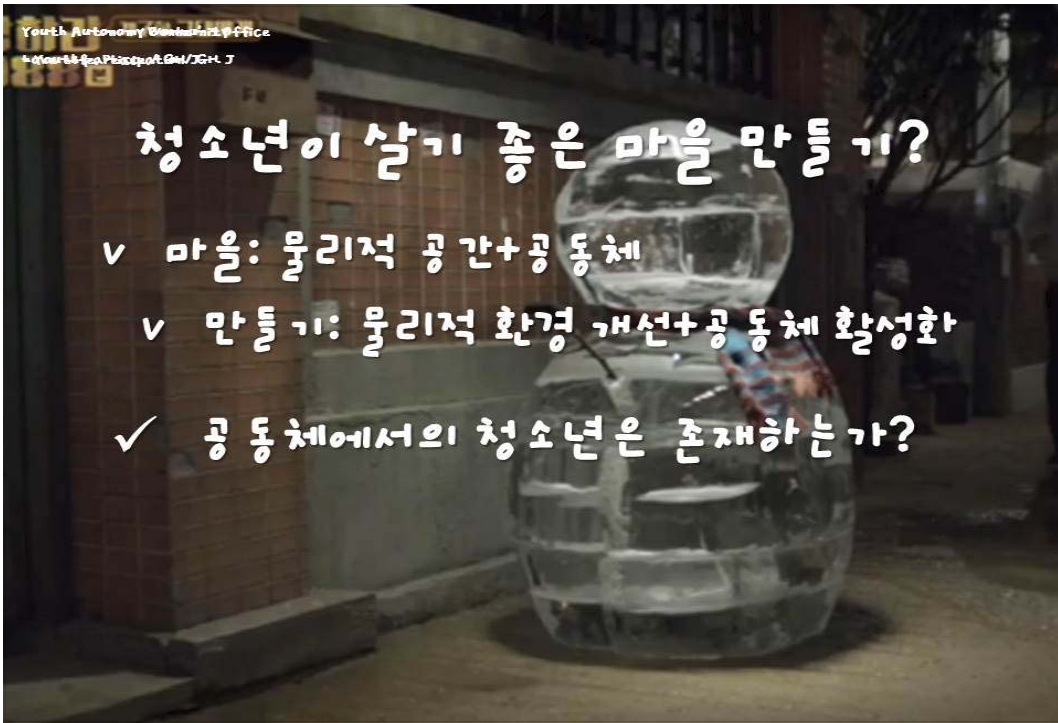
네트워크?

마을 공동체?

아동친화도시?

어린이행복도시?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ML J

공동체 유형	주요 활동 및 특징
지역산업형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소득 선순환시스템 창출 -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공동체조직을 통해 활동 -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창업, 공동브랜드,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개발(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네트워킹 추진
지역교육형	■ 지역 주민의 생애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 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스포츠·취미·여가·자원봉사활동, 기업교육
지역복지형	■ 지역사회 공동체관계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복지협력네트워크 구성
지역안전형	■ 지역사회가 직면한 재난·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 안전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 -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감시·단속, 긴급복구 등 미흡한 공공부문 보완
문화역사형	■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자원을 보전하여 장소 정체성과 자긍심을 창출 - 가옥, 거리, 상가 등 물리적 생활환경 및 고유한 유래, 역사사건, 민속, 전통산업, 생활 및 생산활동 등 무형적 속성 창출
다문화지원형	■ 외국인밀집지구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생활정비형	■ 주거환경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마을테마 만들기, 담장정비, 문화·여가활동, 특화거리조성, 벽화사업 등
환경생태형	■ 환경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추진 - 환경생태보전형, 환경생태순응형, 환경생태개발형

* 자료: 안전행정부(2013.9)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참고

공동체에서 청소년은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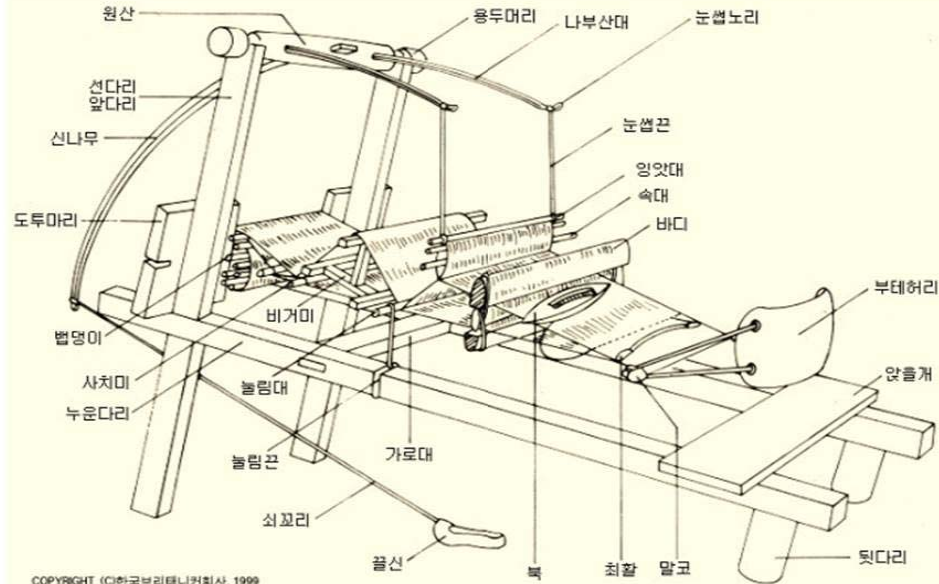


날줄

씨줄
(짜배기)

기본형: 씨줄을
날줄 사이로
꼬아나간다.

- 네트워크? 씨줄 날줄만 이야기?
- 청소년+기성세대 모두라고?



- 민과 관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수반
-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행정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가 연대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기반
-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마련되어 현장의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요구

출처: 이지수, 정연희(2016).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군산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평가 체계구축 연구보고서. 군산시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지역사회 동사의 청소년 참여지원 활동

달그락달그락에서 열리는 청소년 진로 Talk Concert
"The Thirteenth Story"

달톡콘

GUEST  **전율민** 사회자양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양도

- ★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오후 2시 ~ 오후 3시
- ★ 장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월평로 475-1, 명산동 전북은행 옆
- ★ 주최 청소년자치연구소
- ★ 주관 달톡콘서트 추진위원회
-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063-465-8871 - Online신청 : 하단의 링크 참조

<http://goo.gl/forms/Mk7bwB20QRdGAGMI2>



Youth Autonomy Worker' 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달그락달그락

Youth Autonomy Worker' s Office
- Youth participation/ G4 J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정부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군 산 시** 

수신 청소년자치연구소
(경유)

제목 청소년 참여포럼(15.12.11) 정책제안 반영사항 알릴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열성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5. 12. 11.에 '청소년이 제안하는 지역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청소년 참여포럼』의 정책제안사항과 관련
→ 2016년도 우리시 관련정책에 일부 반영하여 실행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발전적인 정책제안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사항 적용 분야】

✓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어린이·청소년 정책창안대회
✓ 불량식품 유통방지	✓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 진로체험 지원	✓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붙임 분야별 2016년 업무계획 1부. 끝.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누가 만듭니까?

- ✓ 청소년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변화보다는 그들을 알아가는 노력의 과정 그 자체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 ✓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란, 공동체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며 나누는 과정은 아닌가?
- ✓ 관계 한다는 것은 알아 간다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과 함께 내 이웃을 알아가는 관계

[표] 마을 만들기 운동과 청소년행복마을의 관점

마을 만들기			청소년행복(친화)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성 기반)	만들기 (운동)	주체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운동)	주체
물리적공간(하드웨어)	물리적 공간 개선	마을주민이 주체이며 행정은 지원 조직	청소년에 의한 물리적 공간과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로의 사회적 신뢰관계 형성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청소년친화마을, 청소년을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연대하는 운동의 과정으로서 행정 지원이 수반	청소년이 주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가 및 시민
커뮤니티(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 관계 개선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

담당	역할	세부역할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역할로서의 민간 청소년활동가인 데, 본 사례에서 청소년자지원구 소의 역할)	청소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인식 개선활동 ■ 마을(도시)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교류 활동 매개와 촉진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 아동, 청소년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협력 추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 조직과 연계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협력 추진 - 농촌활성화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과 연계 ■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대하여 활동하며 연결 고리 만들기
	전문가 관리 지원운영	■ 청소년친화마을 마을만들기 전문가 관리 운영 ■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마을(도시)에 전문가 연결과 활동관리
	종합적 자료 축적 및 제공	■ 청소년친화 마을 현황·자원·사업·역량 등 종합적 DB구축 ■ 청소년친화 마을과 관련한 종합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지원조직 협력과 역할분담 모색 ■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사업	■ 청소년친화 마을만들기 문화 확산과 마케팅 ■ 청소년친화 마을만들기 교육자료·사례집 발간

[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민간 청소년활동가의 역할

담당	역할	세부역할
청소년활동가 (청소년자지원 구소 및 청소년자치공 간 달그락달그락 의 역할)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영역별 활동으로 경제, 관계,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청소년참여를 위한 공간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공간적, 정책적 지원) ■ 청소년활동의 공간적 물적 지원
	플랫폼 형태 및 찾아가는 공간 구성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허브)적 성격의 공간 구성 ■ 청소년이 활동하는 공간에 찾아가서 지원 및 조직
	청소년참여를 위한 조직 및 제안	■ 청소년들의 조직화 (동아리 등 자치기구 조직, 청소년간 신뢰관계 형성의 촉매역할 등) ■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원 체계 (청소년참여포럼 등)
	청소년과 시민사회 및 민간네트워크 형성	■ 청소년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소통·협의채널 형성 ■ 참여자들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협력하도록 지원 - 청소년.행정·시민사회·물뿌리공동체·전문가 등
청소년	주체적인 참여	■ 청소년조직화 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주도적 참여(청소년의회, 청소년자치기구 등 활동을 통한 실질적 정책 제안, 인식 개선 운동 등)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민간 청소년활동가의 역할

담당	역할	세부역할
시행정 담당	청소년친화 마을을 위한 통합부서	■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통합부서 ■ 지역 전체의 청소년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부서의 위상 갖고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방안
	행정 및 정책 반영	■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제안 반영 노력 ■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지원
	공모사업 등 정책 지원	■ 청소년친화마을을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모사업 마을 선정·관리·지원·평가 ■ 청소년친화 마을 사업 진행 마을(도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의회	예산 및 조례 등 정책	■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 ■ 청소년친화마을 관련 조례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통한 청소년친화마을 관련 예산 지원
연구자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연구	■ 청소년이 연구의 대상이 아닌 연구자로서 참여 ■ 청소년친화마을 활동과 정부지원사업 조사 ■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활동 분석과 평가 ■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활동모델 정립 ■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지원정책 개발과 거버넌스 협력 모델 개발 제시

[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담당	각 주체별 역할
시행정 담당	청소년친화 마을을 위한 통합부서
	행정 및 정책 반영
	공모사업 등 정책 지원
청소년	주체적인 참여
시의회	예산 및 조례 등 정책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트 역할로서의 민간 청소년활동가인데, 본 사례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역할)	청소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
	전문가 관리 지원운영
	종합적 자료 축적 및 제공
	역량강화 지원
	교육·홍보사업
청소년활동가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의 역할)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참여를 위한 공간
	플랫폼 형태 및 찾아가는 공간 구성
	청소년참여를 위한 조직 및 제안
	청소년과 시민사회 및 민간네트워크 형성
연구자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연구
교사	학생 참여 지원 및 네트워크 참여

주니어자치연구소

010-8647-1198
babogh@daum.net
<http://www.youthauto.net/>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청소년 역할

강 건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 청소년기자단/Aspect 부팀장)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기자단 aspect에서 활동 중인 회현중학교 3학년 강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2년째 기자단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기사도 쓰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면서 얻게 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참여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기자단에서 제가 사회 참여에 대해 배우고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기 전에도 같이 활동하는 친구나 형, 누나들이 달달포럼 같은 포럼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포럼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2. 청소년의 역할 및 지역제안

● 청소년 조직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청소년 스스로!

앞선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에서 당사자인 청소년 주도적 참여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의 지원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친화마을 만들기에서 많은 청소년 활동가, 시의회, 교사 등의 주체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청소년

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청소년들의 역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청소년의 역할에서 ‘청소년 조직화 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도적 참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조직화라는 것이 청소년이 스스로 조직화한다는 것인가요? 촉매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에는 단계와 여러부분들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의회나 청소년 자치기구도 시에서 주관하거나 달그락 같은 단체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활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이 존재하는 마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군산지역에 청소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존재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몇가지를 제안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조직화 할 수 있게 학교나 달그락 같은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 창출의 일환이 앞서 말했던 청소년 참여와 행복에 나아가는 발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의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인식을 바꿔서 청소년도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주관하는 행사나 학급회의를 예로 들겠

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청소년이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입니다. 교사나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 하는 태도와 존중이 청소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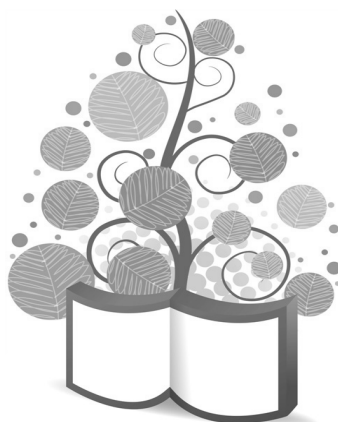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안하자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하는 가요제나 동아리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발표회를 기획해서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늘어날수록 지역은 청소년이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며, 그 공간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표 3

유럽의 청소년 참여 활동 현황 및 시사점

- ▶ 발표자 :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강 성 옥 (군산시의회 시의원)



유럽의 청소년 참여 활동 현황 및 시사점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유럽의 청소년참여 활동 현황 및 시사점

박 선 영

Table Of Contents



- 유럽 청소년포럼 European Youth Forum
- 유럽 청소년의회 European Youth Parliament
- 한국에서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1. 유럽 청소년 포럼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와 위기
-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 Youth in 2020 – the Future of Youth Policies
- 현재를 진단하고 청소년의 필요를 분석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의 역할 파악
- 위기 청소년의 참여 강화와 지원



1. 유럽 청소년 포럼



1) 배경

-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을 미래를 위한 위대한 자산으로 인정
- 니트족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증가
- 경제적 위기의 지속
- 유럽연합 내 이주와 교류의 증가로 인한 정체성과 문화 혼란
- 유럽연합의 확장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청소년 증가

1. 유럽 청소년 포럼



2) 청소년 실태

- 청소년 개념 : 아동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 교육에서 전업제 일자리로의 전환 시기, 가족과 함께 살다가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시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의 시기
- 15세에서 29세
- 청소년의 교육참여율 증대(상급학교 진학율 포함) :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기
- 청소년의 시민성, 소속감, 참여 문제 대두

1. 유럽 청소년 포럼



3) 유럽연합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

- 유럽이 지향하는 가치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방지
-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참여 강화
- 성인으로의 수월한 전환,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진입 지원
-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 지원
-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디지털 시대의 과제와 기회 확산

1. 유럽 청소년 포럼



3) 청소년정책의 내용

- 청소년 시민성 함양 : White Paper, EU Youth Strategy
- 청소년활동(Youth Work) 강조 : informal + nonformal education

1. 유럽 청소년 포럼



4) 유럽 청소년 포럼의 비전과 목적

-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과 청소년기관 참여 증대
- 유엔과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같은 국제적인 기구의 인증된 파트너로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긍정적 영향력 행사
- 모든 정책 개발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나 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의 개념에 대한 홍보
-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청소년시설을 통한 청소년의 참여 증대
-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아이디어와 경험의 교환, 상호 이해뿐만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
- 간 문화(intercultural) 이해, 민주주의, 존중, 다양성, 인권, 적극적 시민성과 결속에 대한 이해 확산
- 유럽이 아닌 전 세계에서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발전에 기여

1. 유럽 청소년 포럼



5) 유럽 청소년 포럼의 자격

- 영리 기관이 아닌 비정부 조직일 것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 유럽 청소년포럼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청소년과 함께 일하며 청소년이 의사 결정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어떤 외적인 권위의 압력으로 인해 기관의 의사결정에 방해 받지 않을 것

1. 유럽 청소년 포럼



6) 브리티시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 영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의회로서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표하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참여하게 하기
-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
-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기술, 지식을 강화하기
- 회원단체와 또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들과 함께 청소년이 마땅히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캠페인 벌이기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1) 배경

- 유럽의 청소년이 개방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이 되도록 지원
- 1987년 프랑스에서 시작
- 현재 40개의 유럽 국가가 참여
- 매년 3만 5천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2) 목적

- 유럽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유럽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유럽의 정치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 국제이해, 간문화, 사고의 다양성과 존중 도모
- 유럽청소년의 개인적인 개발 촉진
-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3) 운영전략(International Strategy 2016-2020)

- 사회통합
- 청소년 역량강화
- 청소년의 기여 인정
- 청소년의회의 안정성과 지속성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4) 영국 청소년의회

- 11세에서 18세의 청소년 대상(368석)
- 청소년의 의견 대변
- 사회적 배제 청소년 참여 독려
- 9개의 지역별로 운영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강조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5) 핀란드 청소년의회

- 2001년 구성
-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참가
- 연 4번의 정기 회의, 15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
- 교육문화부로부터의 예산 지원
- 청소년 시민교육으로 간주
- 학교에서 모의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운영
- http://eypfinland.org/files/2013/04/psp_guide_english.pdf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6) 아일랜드 청소년의회

- 2001년 구성
- Teambuilding, Committee Work, General Assembly 로 구성된 숙박활동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6) 아일랜드 청소년의회

Teambuilding



The first evening of the session, usually a Friday, is dedicated solely to Teambuilding. The aim of teambuilding is to turn each Committee, a collection of students who have never met before, into a functioning, close-knit team; one which pulls together and respects each other and is able to tackle the problems of the coming days.

Under the direction of experienced team-builders and EYPers, the Chairs, the delegates in Committees engage in a variety of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some physical, others creative, but all of them fun. Teambuilding is designed to get this disparate group of people working as a team and will provide them with the tools necessary for the discussions of Committee Work.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6) 아일랜드 청소년의회

Committee Work



This is perhaps the central part of any session. The delegates of the Committee come together and sit down to discuss their particular topic. Their goal is to write a resolution on this topic on which they can all agree. This is no easy task. They come from very different perspectives, and will almost certainly have to reach compromises if they are to find agreement within the time required. To help them in this, each committee has experienced Chairs, older EYP alumni, who guide them through the process and ensure that the ideas of everyone are heard and that the resolution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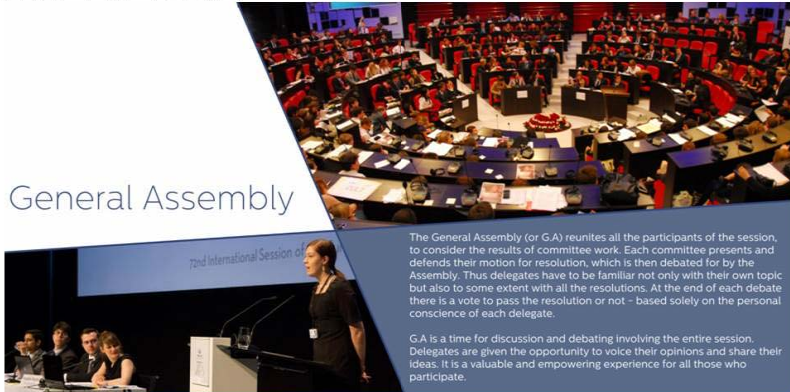
The discussion is always very heated and passionate, but the end result is that each of the delegates have learnt an incredible amount about the issue, really thought about the implications, and have developed and redeveloped their own views.

2. 유럽 청소년 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6) 아일랜드 청소년의회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or G.A.) reunites all the participants of the session, to consider the results of committee work. Each committee presents and defends their motion for resolution, which is then debated for by the Assembly. Thus delegates have to be familiar not only with their own topic but also to some extent with all the resolutions. At the end of each debate there is a vote to pass the resolution or not - based solely on the personal conscience of each dele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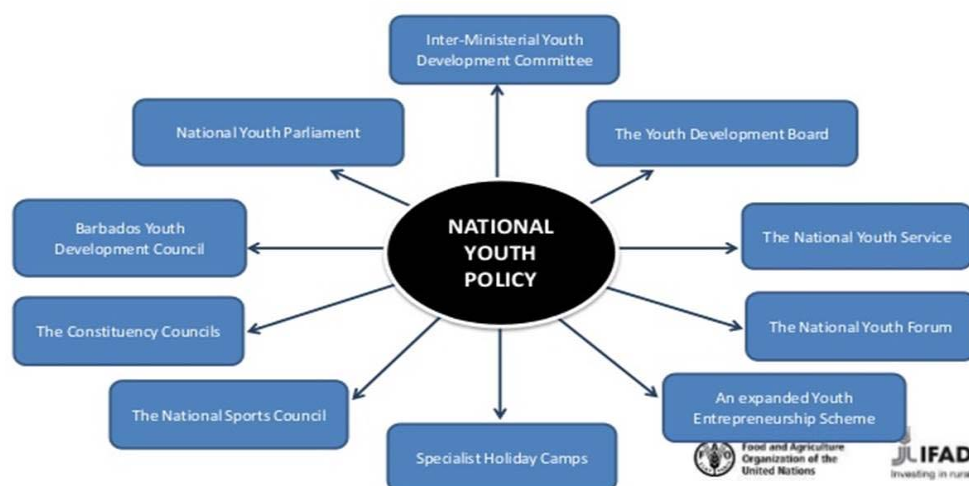
G.A. is a time for discussion and debating involving the entire session. Delegate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voice their opinions and share their ideas. It is a valuable and empowering experience for all those who participate.

3. 한국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 청소년 정책의 제반 환경과 청소년에 대한 사실적 실태조사
- 청소년 참여에 대한 국가 사회적 지원 확대
- 학교와 연대한 청소년참여 활동 개발
- 민주주의, 시민교육, 인권의 관점에서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정

MECHANISMS TO ACHIEVE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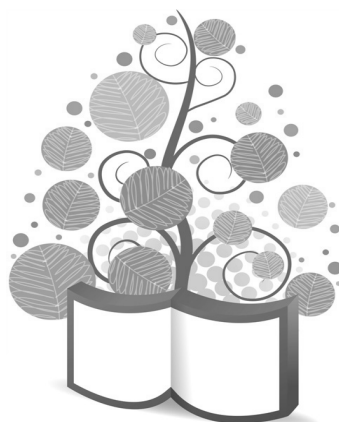
Thank you



발 표 4

국내외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 ▶ 발표자 :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차 정 희 (군산시 과장)



국내외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국내외 마을만들기 운영 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



들어가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 족의 격언



연구의 목적과 방법

- 본 연구는 국내외 마을만들기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 실제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 본연구를 위해
 - 1) 마을만들기의 모범적인 사례에 관한 문헌연구
 - 2) 부산의 마을 공동체를 방문하여 인터뷰
 - 3) 도시재생사업과 담당하는 공무원과 마을활동가 인터뷰
 - 4) 1+2+3+을 분석하여 적용방안을 모색함

1. 희망세상, 행복마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부산 반송 '희망 세상' 손수진 사무국장을 만나다.

- 마을 활동가의 추천으로 희망세상을 알게 되었고, 부산 반송의 '희망세상' 손수진 사무국장과의 인터뷰(2016,5,20)한 내용과 고창권(2005)의 '반송사람들'을 소개하는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함

- (1) 희망세상의 탄생배경
- (2) 세대 간의 행복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활동
- (3) 교육, 복지, 문화의 재생



청소년행복마을'에 적용점

(1)'희망세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되었다.

:청소년 행복마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천적 접근이 필요함

(2) 부산에서 반송 지역에 대한 선입견은 좋지 않았다. **선입견, 편견을 딛고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행력이 있었다.

: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함

(3) 단체를 유지하고 마을 행사들을 주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 활동과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 청소년행복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자원들은 청소년의 행복을 바라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가능함

청소년행복마을'에 적용점

(4) 지속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이 '희망세상'을 탁월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다. 상 하반기 4회씩 운영 위원회의 모임을 교육의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 의제와 관련된 세상 읽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단순히 강연만 듣고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새롭게 구성한 정책에 대하여 공부하고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 청소년 행복마을은 청소년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소속된 마을과 그 마을의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실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2. 감천문화마을



◆ 마을생성 배경

감천2동은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던 태극도 신도들이 6.25전쟁으로 인해 부산 보수동 등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중 화재를 당해 1955년부터 집단으로 이주해와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 해발 200~300m 지점의 비탈면에 판자집 1천여 가구를 지어 거주하면서 **‘태극도 마을’**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당시 신도들은 **‘앞집이 뒷집의 햇빛을 가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계단식 마을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했고 가가호호 화장실을 넣을 수 없어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했음

2. 감천문화마을



1967년도 마을모습

주민·예술가·행정이 손잡고 문화마을 조성 시작

쇠퇴해 가는 마을을 살려 보고자 2009년 예술가와 주민·행정이 합심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감천2동 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이 당선되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음

2. 감천문화마을

- **떠나는 달동네에서 활력있는 마을로 변모**
연간 100만명 이상 국·내외 방문

- **일자리 창출과 주민공동체 형성**

문화마을 조성 초기에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3. 3월에는 **120여명의 회원으로 사단법인) 감천문화 마을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마을공동체로서 착실한 역할을 하고 있음

3.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 : 마을은 학교다.

- 기획의도: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됨
- 전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다.

3. '00실험실' : 마을은 학교다.

1)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00실험실'의 시사점

- ✓마을의 노력
- ✓대안교육의 흐름
- ✓교사의 노력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민간의 노력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3. '00실험실' : 마을은 학교다.

2)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이 청소년과 마을에 끼치는 영향

-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가짐
-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의 관계가 다양해짐
-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기대함

4. 마을활동가 신미영대표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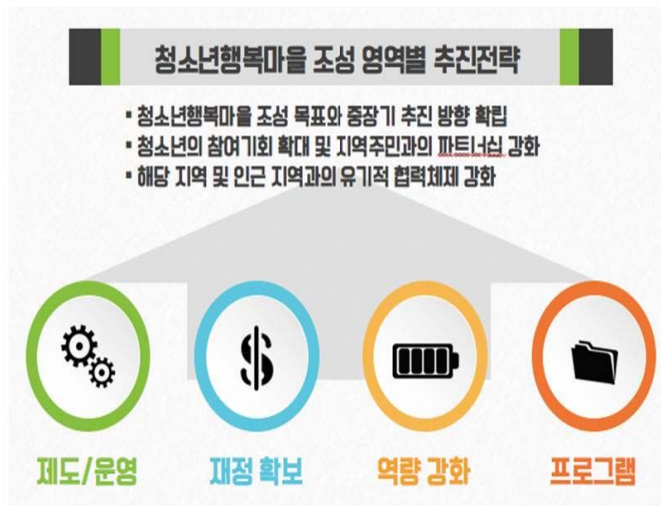
부산에서 마을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행복발전소 신미영 대표'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 코디네이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부산이다.

마을의 모든것-행복발전소 신미영 대표의 이력

- 13년 필봉옴 행복마을주민대학/갯다행복마을주민대학/
시곶골행복마을주민대학/미리내행복마을주민대학/
한내행복마을주민대학/새발행복마을주민대학
고도심동래 창조도시대학
- 14년 진목행복마을주민대학/북구 금곡동 공창마을학교
산성행복마을주민대학/대지상리행복마을주민대학
동삼주공2국화행복마을주민대학
- 15년 본죽산행복마을만들기학교/초량골목축제
좌천동주민대학/수정5동주민협의회 워크숍
수정골마실길김장문화제



나가며...





참고자료 & 이미지 출처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장래토론회.
- 희망리포트(2013) 18호 일본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
- 희망리포트(2016)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Asia NGO Innovation Summit 2013, Program Book Social Innovation Meets Technology: Scaling Social Impact and Enriching People's Lives
- 부산에서 책 만드는 이야기 산지니 출판사 블로그 <http://sanzinibook.tistory.com/27>
- - 못사는 동네 반송에서 희망세상으로 / 산지니 책/마을 만들기 2016년 5월 17일 검색
- 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
- <http://photo.naver.com/view/2013062320352811534> : 군산앞바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21482&cid=55788&categoryId=56733> : 반송마을
- <http://gcinnews.tistory.com/1394> : 마을공동체가 답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행정 역할

차정희(군산시 과장)

지방자치 제도의 시행의 핵심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민주주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들의 민주의식 향상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만큼 시민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들은 참여의 주체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그 사유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성인들의 보호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참여의 주체로 대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련활동, 문화예술 활동, 단체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지원과 학생-교사, 학생-학생, 학생-부모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위주의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들이 피동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주인의식 저하시키는등 기존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일방적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포럼을 통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은 우리 지역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참여 전기를 마련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1. 청소년 행복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적기

우리시는 민선6기 핵심 목표를 어린이¹⁾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

1) 아동, 청소년 관련 법은 7개로 연령층은 0세~24세에 이르고 있어 아동,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

하면 지역사회가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어린이 행복 도시 조성’에 두고 있다.

어린이 행복도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른 시각에서 이루어지던 도시 조성사업을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등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기반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토양은 그 어느때보다 비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중점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가. 어린이 권리 증진과 시민 인식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나.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한 어린이 무차별 및 최우선의 이익 실현
- 다. 생애주기별 어린이 행복사업 추진
 - 영유아기는 부모·보육교사 교육과 보육 지원 사업 추진
 - 아동, 청소년기 친구와 더불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참여 사업 추진
 - 학교 폭력, 학대,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세미나



아동영향평가 용역 보고회

2. 청소년 행복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 방법

청소년기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자발적이면서 자율적인 모임형성과 건전한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2.1 자아개발 프로그램 운영

-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등

2.2 가정생활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등

2.3 시민생활 프로그램 운영

- 지도력 배양 프로그램, 봉사활동(환경보호, 농활동), 자선바자회 운영등

2.4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음악(미술)제, 청소년 체육대회등

2.5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청소년 행복 마을 만들기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규모를 다소 축소한 형태로 가장 적극적인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오늘 포럼의 성격에 적합한 만큼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산시의 경우 2016년 6월기준 전체인구 278,303명중 청소년인구(0세~17세)는 51,122명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어린이 행복 예산은 일반예산 7천4백5십억원중 1천1백7십억원으로 15.8%로 단순히 비교하면 인구대비 193억원정도 예산 반영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명분이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 마을 만들기 참여는 지역사회 활동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참여 경험을 통해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며 지역에 대

한 애정과 관심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한 청년 사업가, 청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창조적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그간 시행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협약

2.5.1 지역의 청소년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개선,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 어린이 시설 중심지역에 대한 행정의 최우선 검토 및 추진으로 대상사업은 통상 횡단보도 도색, 가로등 정비, 보도 개설, 가로수 소독, 안전펜스 설치등이다.

나. 청소년 놀이터 조성과 관련 획일적인 놀이터 조성에서 벗어나 지역별 테마 형태로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암산은 어린이 숲체험, 월명산은 아토피 치료, 오식도는 생태 체험, 폐이퍼코리아 부지는 모험 놀이 공원으로 조성등을 추진하고 있다.

2.5.2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학교의 교육과정 외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 신학기증후군 해소를 위해 올해 중학교1학년 1,400여명이 참여하는 진로 프로그램중 적성검사 부분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 상담 형태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처음 만나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이해의 정도와 속도

를 높임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 건강, 직업, 생태, 교통안전, 체육 등 오감을 통한 다양한 체험 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정신과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5.3 청소년의 지역 의식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의 주인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축제, 근대역사문화탐방, 마을 벽화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근대마을 조성사업 참여 제안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합 선물 세트 성격의 사업인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추진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가. 참여내용(안)

- 1) 근대마을 만들기 조성 참여 (마을 만들기 청소년 위원회 구성)
- 2)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골목길 청결 유지 캠페인, 자원봉사 등)
- 3) 지역의 근대 역사 학습 및 시설물 탐사
- 4) 근대마을 시설 제안 (벽화, 페인트, 청소년 안내 도우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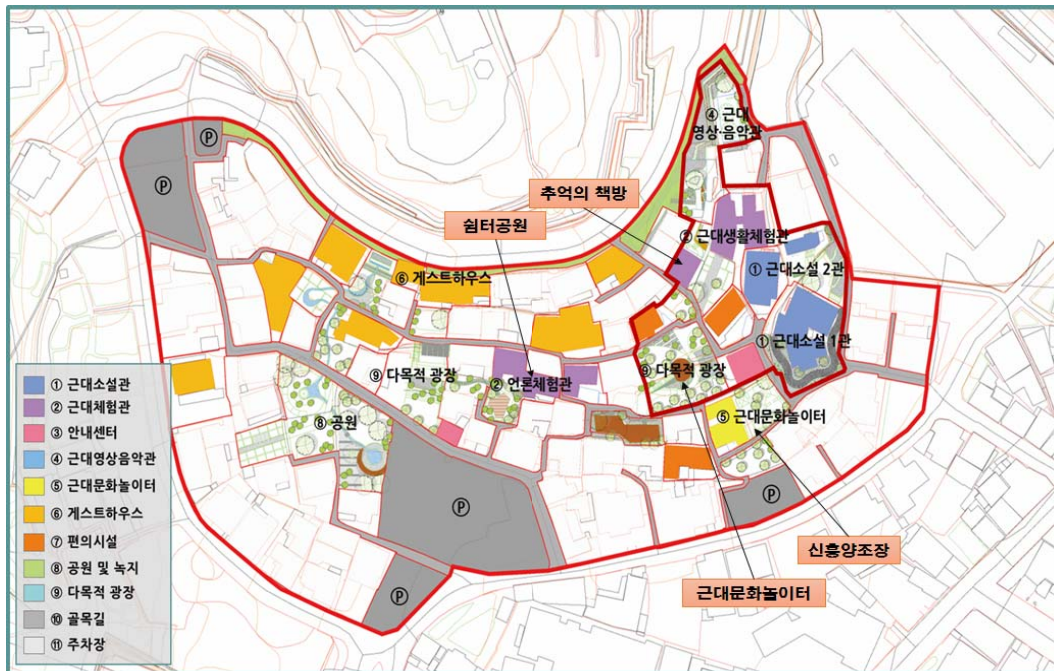
나. 사업개요

- 1) 사업명 : 근대마을 조성사업(1시군 1대표 관광지)
- 2) 사업내용 : 근대문화를 모티브로 한 근대마을 재현
- 3) 사업비 : 72억원(국비32, 도비25, 시비15)
- 4) 사업기간 : 2016 ~ 2019년
- 5) 사업장소 : 신흥동 근대문화지구 일원(약 10,000㎡)

6) 주요내용(안)

- 가) 근대생활체험관 : 체험시설은 시대적 배경에 맞게 구성하고 체험활동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가능하도록 구성
- 나) 골 목 길 정비 : 황토담과 개흙담으로 재현
- 다) 추억의 책방 : 헌책방, 만화방, 활자체험등
- 라) 신흥 양조장 : 양조장 재현, 막걸리 체험등
- 마) 기 타 : 게스트하우스, 시민의 애환이 담긴 상가 조성등

7) 기본계획(안)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인 쇄 2016년 7월 20일

발 행 2016년 7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44)868-7451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